2025. 9. 26 (금)

< 과학학과 학술문화제 >

과학학과 대학원 생활 백서

박사과정 천경서

목차

발표자 소개 & 대학원 진학 계기

1. 학부와 대학원 생활의 차이
2. 대학원 현황 및 연구 실적
3.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기준)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대학원 FAQ

발표자 소개 & 대학원 진학 계기



천 경 서, 25(?)학번

2018. 3. 2 - 2022. 2. 22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학부 졸업

2022. 3. 2 - 2025. 8. 22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석사 졸업

2025. 9. 1 -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박사과정

‘과학 커뮤니케이터’ 를 꿈꾸고 과학학과 학부에 진학했지만...

‘누군가 글로 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내가 직접 만들어 낸 연구로 과학 대중화를 하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1.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

대학 학부생 수업은 약간 이런 느낌임

교수: 오늘은 연어를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나요?
학생1: 연어가 뭔가요?
교수: (대답) 또 질문 있습니까?
학생2: 연어는 먹을 수 있나요?
교수: (대답) 이번에도 질문 있나요?
학생3: 광어가 뭔가요
교수: (환장)

학부 = 교수님의 '연어' 요리 맛보기 체험

교수: "오늘은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배워봅시다."

학부생 1: "교수님, 과학기술정책이 뭐예요?"

학부생 2: "그럼 그때도 KAIST 있었나요?"

학부생 3: "새마을운동이랑 과학기술은 무슨 관계예요?"

→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에 초점

1.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



대학원 = 연어를 직접 잡고, 요리까지 해야 하는 단계

교수: “오늘은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배워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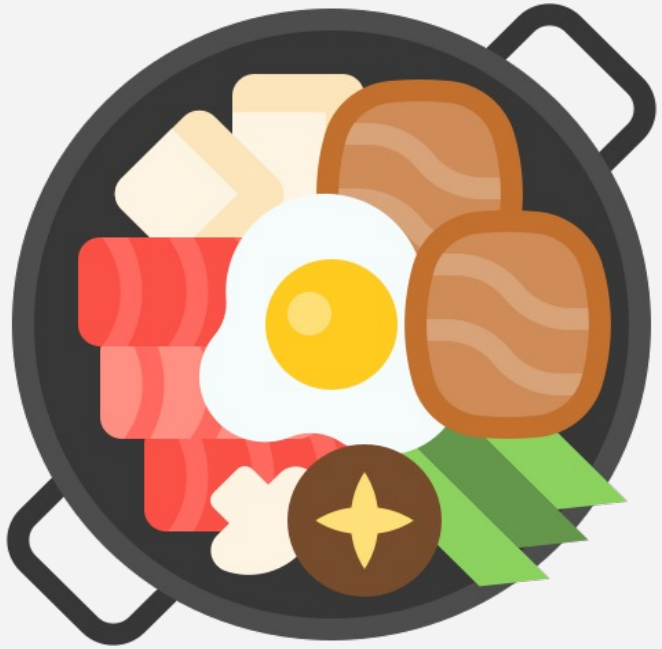
대학원생: .....

교수: “뭐해? 자료 안갖고(안읽고) 올 거야?”

→ 당대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주체적인 학습

(1960-1970년대 사료 수집 및 분석, 선행연구 비판 등)

1.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 요리=연구 이론



학부 수업 = 대중 요리 시식



대학원 수업 = 요리 창조

1.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 요리=연구 이론



요리 선정
(연구 주제 선정)



시장 조사
(선행연구 분석)



재료·조리기구 확보
(연구 사료 수집)



재료 손질
(연구 사료 분석)



레시피 연구
(연구 의의 도출)



요리 판매
(학회 발표·논문 게재)

2. 대학원 현황 및 연구 실적

대학원생 현황 (2025. 9. 12 기준)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계
8	3	-	11

대학원 학위 수여 현황

석사	박사	계
24	8	32

대학원생 학위 논문 실적 (2024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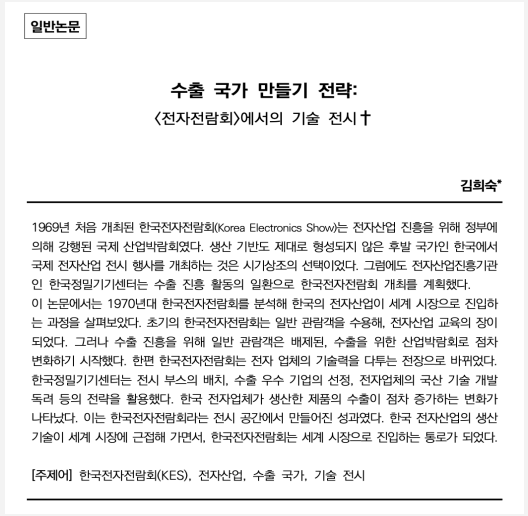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김희숙, “수출산업과 기술습득의 공진화: 1960-70년대 한국 전자산업의 사례” (2025. 8). 황지나, “ ‘과학조선 건설’ 부터 ‘요업한국 건설’ 까지: 김용관(1897~1967)의 과학기술활동 궤적” (2025. 8).	조영호, “케서린 헤일스의 포스트휴먼 이론에 대한 분석: 사이버네틱스 과학을 중심으로” (2025. 2). 천경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규제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사이에서: 1980년대 한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성을 중심으로” (2025. 8).

2. 대학원 현황 및 연구 참여 실적 (2024 - 현재)

학회 워크숍 강연	문혜영	2025. 1. 24.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워크숍> (전북대학교) - “지역의 과학문화, 연구 거점의 형성: 국립생태원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2025. 3. 23-24. <기획전시 연계 특강> (국립생태원) - “<명화로 만나는 생태> 생태정보와 문화예술의 만남”
		2025. 7. 8. <에코플랫폼 서울 생태 교양 강연> (국립생태원) - “에코 인사이트: 생태가 있는 명화”
	이효재	2025. 8. 30. <STS Aspiring Scholars > (KAIST) - “디지털 치료제, ICT와 의료 사이에서: 한국과 미국의 사례 분석”
	천경서	2025. 4. 26. <한국과학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북대학교) -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규제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사이에서: 1980년대 한국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형성 과정”
		2025. 8. 30. <STS Aspiring Scholars> (KAIST) - “1980년대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규제 속 컴퓨터 교육의 발전: 유저 그룹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2025. 9. 6. <전국 STS-STP 학부생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현직자가 들려주는 대학원 생활 및 학부생을 위한 Advice” 토크 패널
	황지나	2025. 8. 29. <제7회 한국근현대과학사 워크숍> (전북대학교) - “『요업학회주보』(1957~1961)에 나타난 대한요업학회 초기 활동의 특징”

2. 대학원 현황 및 연구 참여 실적 (2024 - 현재)

논문/에세이	**김희숙**	“수출 국가 만들기 전략: <전자전람회>에서의 기술 전시”, 『과학기술학연구』 24-2 (2024), 266-299쪽.
	천경서	“과학학과 학생의 삶: ‘나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 『과학뒤켠』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2024), 38-43쪽.
	황지나	“ ‘요업한국’ 을 꿈꾼 김용관: 해방 이후 대한요업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25-1 (2025), 88-112쪽.
장학생	**천경서**	2025년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 대학원 장학생 선정
	황지나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선정
연구과제	<과학·보건·사회의 초국적 공진화로 본 한국현대사(연구책임자: 신동원 교수)> <데이터크라시: 공공 인프라로서 바이오뱀 건설과 가치 권력의 재편(연구책임자: 신유정 교수)>	



일반논문

수출 국가 만들기 전략:
〈전자전람회〉에서의 기술 전시†

김희숙*

1969년 처음 개최된 한국전자전람회(Korea Electronics Show)는 전자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에 의해 강행된 국제 산업박람회였다. 생산 기반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후발 국가인 한국에서 국제 전자산업 전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전자산업진흥기관인 한국정밀기기센터는 수출 진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전자전람회 개최를 계획했다.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 한국전자전람회를 분석해 한국의 전자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한국전자전람회는 일반 관람객을 수용해, 전자산업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수출 진흥을 위해 일반 관람객은 배제된, 수출을 위한 산업박람회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전자전람회는 전자 업체의 기술력을 다루는 전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정밀기기센터는 전시 부스의 배치, 수출 우수 기업의 선정, 전자업체의 국산 기술 개발 독려 등의 전략을 활용했다. 한국 전자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자전람회라는 전시 공간에서 만들어진 성과였다.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 기술이 세계 시장에 근접해 가면서, 한국전자전람회는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었다.

[주제어] 한국전자전람회(KES), 전자산업, 수출 국가, 기술 전시



과학학과 학생의 삶:
“나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Can I be a good chef?
Life as a Science Studies Student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천경서
kscheon@jbnu.ac.kr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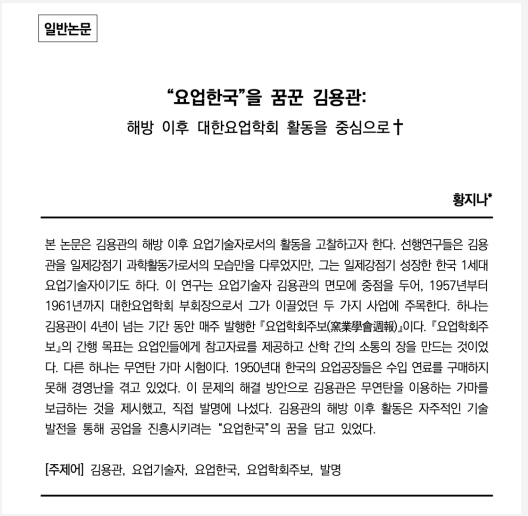
Have you ever heard of th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f you are not a science studies major, even the term “science studies” is probably unfamiliar to you. In the six years between my undergraduate studies in 2018 and my graduate studies, the most common question I received from people was, “What does th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teach?” The more I explained about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the more I had to laugh off the reactions of people around me, such as “Science is just science, then what is science studies?” There was a time when I was confused about how to define ‘science studies’ and how to conduct research. Therefore, in this article, I explain why I was attracted to science studies and what I would like to do with science studies through the analogy of research and cooking. In conclusion, I hope this article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confused about the identity of science studies as well as graduate students who are struggling with research to find their way in science studies.

‘전북대학교 과학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과학학 전공자가 아닌 독자라면 ‘과학학’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2018년 과학학과 학부 입학 후 대학원생이 되기까지 6년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과학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였다. ‘과학학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할수록 “과학이면 과학이지, 과학학은 또 뭐람?”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못마땅기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과 함께 나도 ‘과학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또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은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가 과학학에 매력을 느낀 이유와 연구와 요리의 비유를 통해 과학학으로 만들고 싶은 요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통해 과학학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연구를 어려워하는 대학원생이 과학학에서 자신의 답을 찾는 데 유익한 힘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과학학과 학생의 옷픈(bitterswee) 현실

학기 중에는 공부를 제외한 모든 일들에 재미를 느낀다. 학부 수업이 끝나는 6시 이후가 되면, 연구실 창문을 통해 시꺼먹게대며 놀러 가는 학부생들을 구경하는 것부터 실시간 아구 스트라잌, 냉챔릭스 드라마 및 유튜브 시청을 즐긴다. 돼는 바이로로 석사과정 첫 학기였던 2022년 4월에 받을 세워기며 발제문과 Response Paper를 쓸 때였다. 지금도 첫 학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느끼지만 그때는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동질감을 느끼고자 유튜브에 ‘대학원생의 생활’을 검색해 대학원생 브이로그를 즐겨 보곤 했다.

심심풀이로 본 영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공감을 느꼈으면서도 ‘과학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특수성과 그 외이에 대해서 곱씹어보게 해준 콘텐츠가 있었다. 그것은 (Paid)*라는 채널에서 업로드한 “대학원생 단톡방에 숨은 서내기 찾기 (feat. 교수님기 I PIXID”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일반논문

“요업한국”을 꿈꾼 김용관:
해방 이후 대한요업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황지나*

본 논문은 김용관의 해방 이후 요업기술자로서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김용관을 일제강점기 과학활동가로서의 모습만을 다루었지만, 그는 일제강점기 성장한 한국 1세대 요업기술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요업기술자 김용관의 면모에 중점을 두어,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대한요업학회 부회장으로서 그가 이끌었던 두 가지 사업에 주목한다. 하나는 김용관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발행한 『요업학회주보(窯業學會週報)』이다. 『요업학회주보』의 간행 목표는 요업인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산학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무연탄 가마 시험이다. 1950년대 한국의 요업공장들은 수입 연료를 구매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김용관은 무연탄을 이용하는 가마를 보급하는 것을 제시했고, 직접 발명에 나섰다. 김용관의 해방 이후 활동은 자주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공업을 진흥시키려는 “요업한국”의 꿈을 담고 있었다.

[주제어] 김용관, 요업기술자, 요업한국, 요업학회주보, 발명

3.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기준)

연구

대학 교수

과학관&박물관

국회미래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

공공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외 각종 연구 지원기관)

전북연구원
(각 도 단위 연구원 등)

창조혁신센터

…

미디어

동아사이언스

YTN Science

출판사(사이언스북스 등)

카오스재단

…

기업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SK 최종현 학술원

현대 아산정책연구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날리지웍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학과 워크숍





2025. 1. 3. 과학학과 워크숍 (부안)

- 교수진 & 대학원생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소모임 1







2025. 4. 23. 전주 완산칠봉꽃동산 & 칼국수 맛집 투어

- 김화선, 김희숙, 이찬호, 이효재, 정영경, 조영호, 천경서, 한도연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소모임 2



2025. 6. 13. 신유정 교수님 팀미팅 후 회식
- 이효재, 정영경, 천경서, 한도연 -



2025. 7. 24. 전주 팔복예술공장 관람
- 김나림, 김화선, 김희숙, 박희경, 한도연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학회 발표





2025. 4. 26. 한국과학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 김화선, 천경서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해외 과학문화탐방







2025. 7. 14 - 2025. 8. 4 미국 과학문화탐방 & 연구사료 수집

- 천경서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학위수여식





2025. 8. 22.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김나림, 천경서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대학원생 네트워킹



2025. 8. 30. STS Aspiring Scholars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KAIST)

- 이효재, 천경서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대학원생 네트워킹





2025. 8. 30. STS Aspiring Scholars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KAIST)

- 김나림, 이효재, 전광진, 정영경, 천경서, 한도연 -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패널토크





2025. 9. 6. 전국 STS-STP 학부생 학술대회 (전북대, 서울대, KAIST, GIST, POSTECH)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 연구실







대학원 연구실(자연과학대학 본관 1층, 6층)

자주 묻는 질문(FAQ)

“학점이 높지 않아도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고 싶어요.”

“대학원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나요?”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대학원 진학 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감사합니다